

### “부여 능산리=신궁터” 재야학자 서정록 씨 주장 문화재청 “절대 틀림없다”

한 재야학자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부여 능산리 절터는 ‘절터가 아닌 신궁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국 고대문화사 연구가 서정록 53씨는 최근 펴낸 <백제금동대항로-고대 동북아의 정신세계를 찾아서> (학고재)에서 ‘백제금동대항로(국보 287호)는 백제 왕실의 조상신과 각종 신령들을 모시는 데 사용된 것’이라며 ‘항로가 발견된 능산리 유적지는 본래 <일본서기>에 전하는 백제 신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서 씨는 장식된 연꽃만으로 항로가 불교의식에 사용된 공양구이며 불교의 연화화생 사상을 담고 있다는 기존 통설을 전면 거부했다.

서 씨는 능산리 유적지의 건물배치가 ‘1탑 1금동 1강당’의 전통적인 백제 가람배치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학설에 대해서도 강당에 그 동안의 백제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2개의 본실과 회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들어 ‘성급하게 불교 사찰로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 보편화되어 있던 ‘신불양립’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통설을 뒤엎는 파격적인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국립부여박물관 측은 ‘백제금동대항로 하나만을 놓고 단정할 수 없다. 불상의 광배 조각, 목탑지, 사리장 등의 출토유물을 볼 때 절터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역시 능산리 유적지를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면서 ‘95년 출토된 백제왕명사리각의 명문내용으로 보아 왕실에서 세운 국찰이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형진 기자



◇백제금동대항로(국보 287호).

### 전문학술지 ‘불교원전 연구’ 창간

## “범어-팔리어 문헌연구 활성화”

불교학 연구의 기초학문 격인 원전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불교 원전만을 다룬 전문 학술지가 나왔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8월 31일 창간호 <불교원전연구>는 불교원전의 판본과 필사본을 통해 불교 문헌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최초의 불교원전 관련 전문학술지다.

일차적으로 불교 문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불교학에 관련된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전연구> 창간호는 불교학 연구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년에 두 차례(6월과 12월) 발간될 <원전연구>는 한문 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불교학 풍토에서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문헌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연구원은 한역본뿐 아니라 산스크리트, 팔리어, 티베트어로 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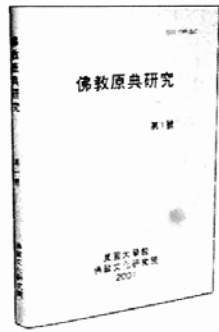
원전 단순 번역 넘어  
연구자 견해도 제시

“한문 대신 국어 사용  
많은 사람 쉽게 이해”

진 불교의 경·을·론을 번역하고 주석함으로써 불교의 개념과 사상을 새롭게 정리하고, 나아가 이 분야 전문가 육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의도는 창간호에 실린 논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원전에 대한 단순 번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헌의 구성, 의의 설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왕의 해석과 연구 성과, 연구자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 측은 “교계에서 발행되는 20여 종의 학술지는 대부분 특정 화회에서 내기 때문에 화회 나름의



◇국내 최초의 불교원전 전문학술지 <불교원전연구> 창간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글을 신기 마련이다”며 “이런 경향은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을·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문 번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 역시 <원전연구>의 목표다. 한역본은 신역이라 해도 당나라 현직이 번역

한 것이다 보니 천 년 이상 된 고대 한문으로 쓰여 있어 현대에 와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를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문헌과 비교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나아가 어려운 한문 용어 대신 쉬운 현대 국어로 개념을 재정립해 현대적 해석까지 시도한다는 것이다.

불교문화원장 권기종 교수는 “일본이나 서구에서 불교학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문헌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불전을 보다 쉽게 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간호에는 범어 원전을 다룬 △<정리일적소(正理一滴疏)> 제2장 ‘위자비랑’ (이지수 동국대 교수) △성스러운 도간(稻秆)이라는 대장경(김성철 동국대 전임강사) △불교 브라마나학파에서의 요가 수행자의 증지우 제신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등 3편의 논문과, 팔리어 문헌을 다룬 △<타의 위대한 입멸-〈대반열반경〉(안양구 서울대 종교문화연구소) 등 2편, 티베트 문헌인 △도차제의 정수(양승규 동국대 강사, 한문본인 △중편도중위(김호규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등 7편의 논문이 실렸다.

권형진 기자 jmy@buddhacha.com

## 송광사 소장 티베트 문서 “여행 증명서다” - “법지다”

보조사상연구 국제학술대회서 의견 양분



◇송광사 소장 원대 티베트 문서.

전남 순천 송광사에 전해오는 티베트 문서는 여행 증명서인가, 원나라 때 제사(帝師)가 발급한 ‘법지(法旨)’인가?

송광사에 티베트 문서의 성격과 작성 배경을 규명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송광사 성보박물관과 보조사상연구원 주최로 8월 25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문서가 고려와 몽골간의 관계 연구에 귀중한 자료란 점에는 동의했지만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1998년부터 이 문서를 연구해온 일본의 나카무라 준(中村俊) 대 전 임강사는 “원나라 불교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제사가 발급한 법지라는 국가적 명령문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카무라 교수는 이 문서에서 역전과 관련된 어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점과 내용 가운데 “위해를 가하거나 힘을 미치는 것 등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확인 된 것으로 보아 “제사가 재산 등 사원 보호를 위해 발행한 특허장”이라고 주장했다.

모리하라 마사히코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은 “송광사 법지는 원나라 제사의 권위가 고려에까지 미친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허일범 교수(진각대)는 “쿠빌라이칸의 초청으로 몽골을 다녀온 수선사(송광사의 옛이름) 제6대 원감국사 충지에 수여된, 신분보장을 위한 통행증”이라고 반박했다.

장동의 교수(경북대)는 “고려 불교계가 제사의 관할 아래 들어가 있었다는 주장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강진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도 의상 스님 관음보살 친견 형상화”

장충식 교수 주장

보물 1314호인 전남 강진 무위사의 극락전 백의관음도는 의상 스님의 관음보살 친견설화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사)는 8월 30일 한국정토학회 주최로

열린 ‘정토교와 한국문화’ 학술 세미나에서 무위사 후불벽 뒷면의 백의관음도는 “일반적인 수월관음도와는 달리 선재 동자 대신 노비가 등장하고, 백의를 입고 물 위에 떠 있는 연잎을 타고 있는 입상이란 점이 흥미롭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상대사가 동해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던 설화 내용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



진다’고 밝혔다. 백의관음도에 적혀 있는 유자량의 목서 개찬 내용분석을 통해 백의관음도의 도상 의미를 밝히려는 이번 시도에서 장 교수는 “이 시기 유자량이 낙산사 관음굴을 답사하고 쓴 시와 내용이 일치한다”며 “선재 동자 대신 자리잡고 있는 노비는 곧 의상 스님으로 볼 수 있으며, 스님의 등에 앉아 있는 새는 설화에 나오는 청조(靑鳥)”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보물 1313호)의 화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판독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정우택 동국대 겸임교수는 “백의관음도는 조선 초기 불화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작품인데도 지금까지 도상과 개찬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없었다”며 “의상 스님의 관음보살 친견을 형상화한 백의관음도는 한국 수월관음도의 새로운 전형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 高僧 다시보기

도선 국사와 풍수도참

도선 국사(道善國師, 827-898)는 풍수지리와 도참술의 비조로, 혹은 고려 왕조를 개창한 태조 왕건에게 정신적 이념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참다운 고승이라기보다는 술승 또는 권승으로, 심지어 신화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스님이 저술하였다는 <도선비기> <송악명가> 등의 풍수도참류의 영향도 있지만 <관현통록> <송이전간>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서에도 풍수도참사상이나 태조 왕건과 관련한 기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스님이 당 나라에 가서 풍수도참술을 일행(一行, 687-727)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으며 왕건에게 직접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도선 스님은 당나라에 간 적도 없으며 일행 스님보다 100여 년 뒤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스님이 일행 스님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겠지만, 왕건(877-943)의 출생을 예언하고 그를 직접 가르쳤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남 강진 무위사에 있는 선각국사명판탑비.

비보사탑설 조선시대까지 적용

왕건에 가르침 전수 ‘잘못 알려져’

다만 스님의 풍수도참술이 태조 왕건에게 정치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사실인 듯하다. 태조의 혼요심조에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사찰과 탑 등의 터를 지정하였던 것도 이른바 비보사탑설(禱補寺塔說)에서 나온 것이다. 신라 경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왕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 왕조의 사찰의 재배치 또는 불교계의 재정비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고려 시대는 물론이고 조선 시대에도 면면히 계승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나라 명산대찰을 가늠해볼 때 스님이 터를 지정한 사찰이 적지 않다.

이렇듯 스님이 풍수도참술을 펼친 것은, 신라 말 어수선한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스님은 본래 전라도 영암 출신으로, 왕가의 후예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5세에 출가하여 문성왕 8년(846)에 당나라 서당지장(西堂智藏, 735-814) 선사에게 심법을 인가 받고 돌아와 전남 곡성 동리산 태안사(泰安寺)에서 동리산문(桐裏山門)을 개창한 적인 선사 혜철(惠徹, 785-861)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15년간 운수행각을 벌이며 두타행을 하였고 72세로 입적할 때까지 광양 백제산 옥룡사(玉龍寺)에 35년간 머물렀다. 서당지장에서 심법을 받은 혜철 스님에게 ‘말 없는 말, 법 없는 법’이라는 가르침을 받아 선법을 크게 펼친 바 있으므로 옥룡산파(玉龍山派)를 개창한 선승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 귀신침범비법 · 산소침해비법(탈) · 빌미 · 부정병비법 · 응기 판단비법 · 비병비법

### 위 각 육임비요형이상비법 상해(六壬秘要形而上秘法 詳解)

찾아오거나 전화해 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을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에게 지금.

- 어떤 귀신, 누구 산소, 무슨 빌미, 어떤 부정병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 그 귀신, 산소탈, 빌미, 부정병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 할 수 있는지.
- 천도, 시식, 부적, 굿 등의 수법을 행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없을 것인지,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지.
- 수법을 행했을 때, 언제 어느 날 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언제 완전해 질 것인지.
- 모망, 승진, 구제, 구직, 시험, 결혼,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여행, 도난, 실종, 가출, 면접,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락, 묘지, 기후사 등의 중요사.
- 언제(어느 월, 어느 일) 이루어 질것인지.

이상의 형이상사(形而上事)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학술이 갈망되어 왔으나 육임에서는 이에 관련된 사항이 비요(秘要)로 전해져 오고 있는바, 이를 이번에 정확히 밝히게 되므로써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경지가 한차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셔서 활인 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고복자 철학박사      호사 배상  
입금 구좌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나여

## 육임(래정비법)설명회 안내

- 「육임래정비법」 (온 사람의 사정을 미리 알아 버리는 비법) 값 삼십오만원
- 「육임세월정단법」 (묻는 내용을 소상히 판단하는 비법) 값 일십만원
- 「육임대요형이상법」 (귀신·산소탈·빌미·부정병 판단 비법과 일의 되는 날자 판단 비법) 값 일십오만원
- 「육임명판단법」 (사주를 몰라도 운명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는 비법) 값 일십만원

위 내용의 설명을 다음 각 장소·시간에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사오니 위 책을 구입하신 활인·천역자 제위께서는 이 중 마땅한 장소를 골라 참석하시면 더욱 밝은 활인·천역의 당오에 오르시게 될것입니다.

고복자 철학박사      호사 배상

장소 및 시간      식대 및 음료비 10,000원

- 서울 관동원(매주 토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지하철 4호선 수유역 8번 출구 강북구청 차출 일관동) TEL : 02-993-8680
- 부산 불교대학5층(부산시청역역명동)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TEL : 011-298-5466
- 대구 모리암 신원(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49-1(영대병원 지하철 입산출구 세한빌딩 뒷편 2층) TEL : 053-453-0287
- 광주 광주시 동구 학1동 동사루스 2층 회의실(매주 화요일 오후2시~5시까지)
- 전주 팔각당(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전주시 경원동 27가 43-3(구 경기신 뒤 체제한리원 2층) TEL : 063-284-7714
- 수원 수원시 광양구 지동 319-4(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반인철 철학원 (기동체일교회 뒷편) TEL : 031-242-8813
- 청주 동인당 한림빌(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청주시 상당구 오원동 378-4(동부경찰서-MBC 사이) TEL : 043-221-2527
- 원주 노경철학원(매주 목요일 오후5시~8시까지) 원주시 봉산동 쌍대리(경찰서 앞)점 한약당 2층 TEL : 017-377-7005
- 인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92-4 중호철학 컨설팅(매주 화요일 오전9시~12시까지) 인천시 지하철 1호선 박천역에서 2분출구에서 전파오양 TEL : 02-554-3799
- 충주 충주시 가림면 청동리 금강사(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까지) (관공대 관 다라에서 150미터 지나서 금강사 이정표가 있음) TEL : 043-642-3352
-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0-8 대원회관 3층 양무관심사사무실 (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까지) (갑천 태평교 동쪽주요소 옆) TEL : 042-584-1709

위 책 구입 및 설명회 문의전화 : 02-993-8680  
도서출판 북문